

행복도시 이야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Vol 196 2023. 7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행복청,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 개최

- 외신기자 14명 행복도시 세종 방문, 행복도시 도시건설 노하우 공유
- 행복도시 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현장 투어



6월 28일 주한 외신기자 14명을 행복도시 세종으로 초청하여 프레스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는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외신에 소개하고, 행복도시 세종의 인프라, 정책, 일상 체험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의 비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외신기자 일행은 행복도시 홍보관을 방문하여 2007년부터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 역사를 살펴보고, 도시통합정보센터,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로컬푸드 싱싱장터 등을 방문하여 자족적 도시 기반 마련, 혁신 산업 생태계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및 도시농촌 상생의 플랫폼 완성 등 세계적 수준의 신도시로 조성해가고 있는 도시 건설 노하우 등을 공유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였음에도, 행복도시 세종이 젊은 인구비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과 다자녀비율 1위를 기록하였다는 통계자료에 관심을 갖고, 해밀동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공동육아지원센터 등 수준 높은 주민자치시설 및 보육·양육 서비스에 집중하였습니다.

해밀동은 행복청이 공동주택단지 특화사업으로 보행자 위주의 공간 설계와 어린이집, 공동육아지원센터, 초·중·고 및 체육공원, 주민센터 등 복합시설 통합설계로 주민 공동체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생활권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공간인 세종형 로컬푸드 싱싱장터 도담점을 방문하여, 농가 대표자 및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농가에서는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외신기자들의 관심과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행복도시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행정수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완성되고 있는 도시이다. 국가적 위상을 갖춘 대표도시로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민들의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해 도시 인프라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아요”… 기업가 선배들이 꿈는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장점 Best 3

- 기업·대학·연구기관 한데 모여 시너지
- BT·ET·IT 중심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
- 7월 3일부터 잔여필지 분양 시작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높은 세종테크밸리 조성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7월 3일, 9차 잔여필지 분양을 시작하고, 집현동(4-2생) 세종테크밸리에 앞서 동지를 둔 기업가 선배들로부터 입주여건 등에 대해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우수한 입지여건과 중부권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세종테크밸리는 무엇보다 뛰어난 입지조건이 매력적이다”라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 이민혜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또 “행복도시 세종은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는데,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수도권은 1시간, 그 밖의 전국 주요도시 2시간 이내로 잇는다”라며, “기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제격”이라고 이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국내 유일한 KTX 환승역인 오송역과의 거리는 17km, 청주국제공항과의 거리도 37km에 불과하고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다낭 등 해외 수출길을 개척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단순히 지리적 여건만이 아니라, 세종테크밸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단지인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 산업 중심 오송 생명과학단지 중간에 위치해있습니다. 바로 옆인 반곡동(4-1생)에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한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 ‘휴보’로 유명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해 11월 세종테크밸리에 신사옥 건립 등 규모를 확장해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설계를 검토 중이고, 이정호 대표는 “미국과 유럽법인 설립 등 해외 조직망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라며 “세종테크밸리는

부지조건과 각종 혜택 등 기업 친화적인데다 인근에 좋은 기업과 인재, 인프라가 있어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집현동(4-2생)에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KDI,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융합교육과 연구를 촉진하는 신개념 캠퍼스 ‘공동캠퍼스’가 202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대응하는 중부권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2월 공동캠퍼스 입주를 확정하고 현재 토지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이병대 팀장도 “미래 모빌리티와 AI, 로봇틱스 등 세종테크밸리의 산업군과 유사한 연구분야를 가진 학과들이 입주예정”이라며, “앞으로 대학과 4차 산업 선도기업의 선순환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저렴한 분양가와 세제혜택, 행복도시의 집중된 행정력을 통한 정책지원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는 또 “다른 도시나 산단에 비해 기업 확장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가 용이한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라면서 세종테크밸리를 선택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회사의 규모, 역할, 용도 등에 맞춰 산업용지나 복합용지 중에 적합한 부지를 구하기 쉬운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부지가격의 경우 2016년 산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취득세는 2024년 12월 까지 100% 감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에는 각종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오송에 있는 식약처도 가까워 각종 질의나 민원을 해결하기에 편하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휴카시스템 김성준 이사가 꼽는 행복도시 세종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유선으로 협의 해야할 사항도 이곳은 직접 미팅을 하거나 발로 뛰어서 해결할 수 있어 업무효율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 관련 창업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가 구축된 지식산업센터도 유치하여 활발한 연구와 실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들어서 있어,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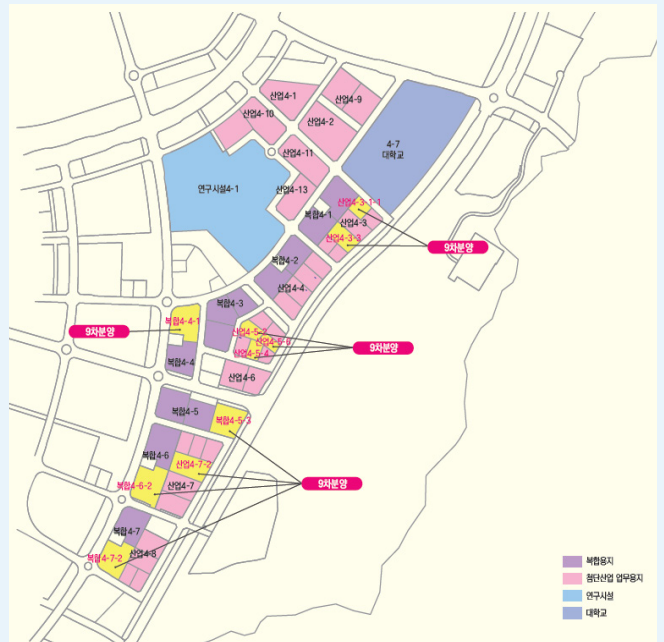
3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정주환경

여기에 직원들의 생활만족도도 높습니다. 휴카시스템 김성준 이사는 “세종테크밸리 인근에 조성된 행복주택은 1,500세대에 이르는 데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 이하다. 타 행복주택과 달리 세종테크밸리 근로자에게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인 가구가 많은 젊은 직원들이 특히 좋아한다”라며, “다른 지방산단에 비해 세종테크밸리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 접근과 인프라 활용도 편리하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축산업과 인공지능 결합사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한 지팜 김곤민 대표는 “계획도시인 만큼 공간이 여유롭고,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광역교통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다른 도시로 가족나들이 나서기에도 부담이 없다”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김 대표의 말처럼 행복도시 세종은 21개 광역노선을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도시 전역을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은 도시의 절반 이상이 풍성한 녹지로 채워져 있어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해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 국제고, 과학영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생활복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8차 분양까지 40여개 기업 유치, 현재 15개사 입주 “7월 3일부터 9차 분양”



[분양필지 위치도]

총 면적 82만 2,495.6㎡에 달하는 세종테크밸리에는 첨단업종과 지식문화산업, 그 밖에도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업종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차 분양까지 첨단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 등 40여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 중 15개사가 건물을 지어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건물 설계, 건축 등 입주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까지 합치면 400여개 기업이 세종테크밸리를 선택했습니다.

7월 3일에 시작한 9차 분양은 산업시설구역(첨단산업업무용지) 6필지와 복합구역(복합용지) 4필지로, 총 10필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8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산업시설구역이 8층 이하, 복합구역이 10층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종테크밸리에는 지난 8차까지 IT·ET·BT 중심의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여 행복도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고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이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인근의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공동캠퍼스 등 탄탄한 연계 인프라를 강조하며 “세종테크밸리가 중부권 자속기능의 핵심이자 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다짐했습니다.

행복청,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준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소통의 공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 30일, 4생활권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준공하고, 7월 말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 할 예정입니다.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장애인 특화형 복지시설로 연면적 13,421㎡, 대지면적 15,019㎡,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3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결하고, 인접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삼성천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접근과 피난을 고려하여 발달장애 교육공간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상 2층에는 다양한 행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울림홀과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을, 지상 3층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인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배치했습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시설로 이들의 건강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유쾌한 체험! 국립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물 마무리 설치중

■ 어린이 발달과 흥미에 맞춰 창의적 상상을 불러넣는 활동 가득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다채로운 체험 전시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을 호기심과 상상의 날개를 펼칠 놀이형 체험물이 가득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입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창의력을 자극하는 기획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새로운 시선이 담긴 체험활동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구멍 뚫린 테이블에 기어와 나사 등을 조립하면서 인류의 지혜가 담긴 도구의 원리를 탐구하고, 어린이들이 창작한 로블록스 게임과 직접 그린 곡선으로 작품을 설치하면서 조화로운 지구를 표현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발달 특성과 흥미에 따라 체험물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 미취학어린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도시건축에 즐거운 상상을 불러넣는 전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건물을 배치하여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땅속 세계도 놀이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어 수 백 가지 빛으로 경관을 만들고, 여러 색상과 패턴을 조합하여 쇼윈도위를 디스플레이 하는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기록문화인 민화의 주인공으로 웹툰만들기, 행렬도의 등장인물과 숨바꼭질하기, 책과 소품으로 책가도(冊架圖)의 책장꾸미기 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안정희 박물관운영팀장은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다채롭고 특색 있는 전시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되도록 개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솜동 공공시설복합단지 공모 당선작 선정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
- 거주민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마을로 조성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7월 20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공공시설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공시설 부문 공모에는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주)범씨앤씨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서 응모작을 제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일반 시민 등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행복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당선작인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은 거주민과 함께 자라나고 변화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함께 나이 들기', '자연과 더불어 변화하기', '언제나 활기를 띠는 견고 싶은 마을'의 개념을 담았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는 "세대 교류가 가능한 돌봄 플랫폼 및 주민과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 등의 제안과 초·중학교를 연계하면서도 독립적 운영을 고려한 시설계획, 중앙부의 커뮤니티 공원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배치 등이 돋보인다."고 총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당선자에게는 각 공공시설의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우선권이 부여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청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계약 후 설계를 착수하고,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시설 복합단지 주거 부문은 7월 27일(목)에 응모 신청을 받아 10월 중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공시설 부문과의 통합성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주요 계획개념인 모든 세대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복청 김흥진 차장은 "해밀동(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에서 이어 공공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유로운 세대 교류를 기반으로 포용적인 공동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 7. 11 ~ 10. 10.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

- 행복청, 안전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 개선안 마련
- 진입차로 노면에 진행 방향 표시,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 조명 설치 등
- 연말까지 12개소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 차량 통행 지원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와 비교하여 정지 없는 교통 흐름으로 차량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증가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출퇴근 시간 지체 발생, 운전자들의 통행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이 있었으며, 소방차 등 대형차의 통행 불편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은 진입차로 노면에 진행 방향 표시, 중앙 교통섬 내부의 식재 공간 조성, 무분별한 시선 유도봉의 설치를 지양하고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조명 설치 등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는 타 도시와 비교하여 회전교차로 밀집도가 높은 도시로, 8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6-3생활권 등에 12개소(2-1생활권 1개소, 4-2생활권 2개소, 6-3생활권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주행 방법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옥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니, 올바른 주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청, 2023년도 적극행정 표어경진대회 실시

-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청 전직원과 국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표어경진대회를 실시하여 6월 2일 최우수상 1개, 입상 7개를 선정했습니다.

행복청 직원 54명, 국민참여단 8명 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통한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표어로는 도시공간건축과 행정수 주무관의 ‘내일해야지 소극행정 내 일처럼해야지 적극행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복청은 이외에 선정된 표어 7개(도합 8개)를 ‘표어 전시회, 누리집 배너설정, 바탕화면 이미지, 공문 기안 상단 삽입’으로 활용하여 생활속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독자 코너

행복이와 한글교시(7교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 '자투리'와 '짜투리'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자투리 나무로 만드는 소품 (O)
- 짜투리 나무로 만드는 소품 (X)
- '나지막히'와 '나지막이'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내게 나지막히 속삭였다 (X)
- 내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O)

* 6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쇠다
2번: 너무 제제하게 굴지 마라

사자성어 배워가기

두 문 불 출
(杜) (門) (不) (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숙제코너

- ① '승락'과 '승낙'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결혼 승락을 받았어요 ()
-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

- ② '결땀'과 '겨땀'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겨드랑이가 결땀으로 젖었다 ()
- 겨드랑이가 겨땀으로 젖었다 ()

행복청의 일상은?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2023년 행복청 적극행정 표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표어인
'함께하는 ㅈㄱ행정, 멀어지는 소극행정'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에 "k-행복도시" 생긴다... 행정도시 모델 수출로 불어오는 '행정 한류'!

韓-印尼(인니) 수교 50주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난 3월, 행복청장 등 외국정부 고위급 최초

인니 신수도 개발 현장방문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수백 조에서 수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모델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도시건설 기술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갈 절호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은 해외 신수도사업 진출의 크나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몽골, 이집트 등 해외 신수도사업의 국내기업 진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행복청이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와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연이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인니 팀코리아 세미나'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행복청과 국토부, 기재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인니 팀코리아 회원사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인니 신수도사업 추진동향 공유와 국내기업 참여 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행복청은 올해 업무 추진목표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건설의 세계적 모델로서 행복도시 수출'을 정하고, 이를 위해 인니 등 해외 각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k-도시모델 수출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인니 신수도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의 우호관계 진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인니 新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맞손'

지난해 7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체결한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인니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부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MOU는 인니가 2024년 1단계 이전을 목표로 하는 신행정수도 누산타라 건설과 관련한 협력을 주로 다뤘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및 디자인, 도로·교량·수자원·담·수도공급·배수시스템·고형폐기물·생활폐수·주택 등의 공공사업과 주택개발 전반을 포함했습니다. 협력 형태는 경험과 지식 공유, 전문가 파견, 역량개발, 초청연수 및 기술 지원,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등이며, 시범사업이 추가됐습니다.





'팀코리아', '한-인니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성 '착착'

행복청은 그동안 인니와의 초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2020년부터 협력관을 인니에 직접 파견하여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와 우수성 홍보, 현지 시장조사 및 여건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로써 국내기업의 인니 시장 접근과 사업 진출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인니 주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총 36개사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출범하여 참여 사업을 발굴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인니 국민평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니 협력 네트워크(UI)'를 구성해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4개 공공기관과 8개 민간기업 등 12개사 합동으로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니 신수도 이전 관련 사업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투자계획부터 건설사업 참여 계획이 융합된 공동전략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행복청, '팀코리아' 참여사업 발굴 등 국내기업 진출 지원 '총력'

“올해 우리나라와 인니는 수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침 인니 신수도 이전사업도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역할은 향후 양국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MOU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래 행복청장도 사실 인니 현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는 인니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계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활동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에 이 청장은 “행복청은 앞으로도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현지동향 파악 및 사업 전략 수립,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해소방안 마련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범정부적이고 총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팀코리아 중심의 선제적 사업 아이템 발굴, 민간기업의 인니 맞춤형 사업화 구상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 행복청이 17년에 이르는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보유한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수자원 관리, 도시운영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도 모색 중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하나 둘 결실을 맺으면 인니 신수도 건설의 본격적인 발주에 맞춰 인프라·주택·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기업 진출의 진정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행복청, 세종경찰청 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블루윙(세종시민을 수호하는 파랑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월 10일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블루윙(blue wing)을 시상했습니다.

세종경찰청 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합강동 청5-11블록에 총사업비 77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8,000제곱미터(㎡), 연면적 18,982제곱미터(㎡)의 규모로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계공모는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등 2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하였으며, 6월 29일 행복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7월 10일 당선자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심사의 전 과정은 행복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블루윙(blue wing)'은 사용자의편의성을 고려하여 내·외부공간을 구성한 작품으로 실용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세종경찰청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권리가 부여됩니다.

임시혁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청-제주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 개최

■ 11일 기관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정책·사업 소개 등 아이디어 공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1일 제주도청에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며, 행복청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원, 제주도의 「차오름」 구성원 등 직급·세대별 공직자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정책을 소개하고, 조직 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행복청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시계획 실증 등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제주도는 「차오름」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기관과 협업을 통해 혁신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의 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하고, 기관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행복청-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

■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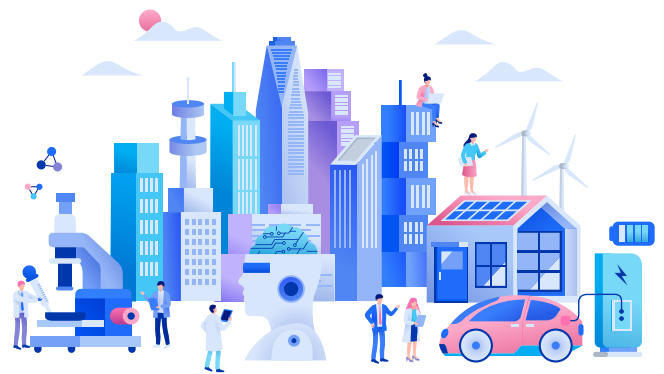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6월 26일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입 등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행복청과시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국가산단 등 행복도시와 세종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사업의 본격 추진 예정에 따라 예정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세종시 전체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세종시 스마트도시 비전 및 목표 설정 ▲스마트기반시설 기준 수립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등 세종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공동수립을 통해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국토부) 절차를 공동 대응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세종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번 공동 수립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DRAW YOUR DREA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3.8.1-12 SaeManGeum, Jeollabuk-do, KOREA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 2023 SaeManGeum

kakao OURHOME BPL TIERRA NH농협은행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관세청

밀수가 의심 된다면 125 기억(7)하세요!

123

456

789

*0#

☎

5월 18일부터
밀수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우리 1월 연말 정산에 꼭 만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1688-0700



KCISA 안국문화정보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갑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소중한 사람, 행복한 일상을 지킵니다.

NO!
DRUGS

강력한 마약 단속,
재활과 치료, 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6070세대가 장작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

tvN STORY
오늘도
주인공★

방송일시 | tvN STORY | '23. 6. 13.(화) ~ 7. 18.(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재방송 | tvN | '23. 6. 20.(화) ~ 7. 25.(화), 매주 화요일 1시

| tvN STORY | '23. 6. 17.(토) ~ 7. 22.(토), 매주 토요일 7시

TVING 업로드

방송내용 | 대한민국 최강 6070이야기예술인 4개 팀이 펼치는 이야기 구연 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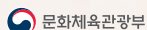
출연진 | 6070이야기예술인, 박미선, 정영주, 장동민, 육중완, 홍윤화 등



누군가의 아재, 여스타, 입아를 살아온 나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과
함께라면 오늘도 주인공입니다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3,000여명이 8,600여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The Korean Studies Heritage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해결,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고통제중 無, 운전피로 無
어디든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우리의 기술로 여는
K-우주시대



꿈의 양자기술!
미세한 발견, 해킹 완전 차단



원단재활의료 치료제 개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원자로
깨끗한 수소 신재생 에너지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내 삶 속의 디지털 신기술,
모두가 평온한 Digital life



차세대 물류 시스템으로
어디든 신선하고 빠르게



넷제로 지구의 시작,
탄소중립도시



농어업 스마트 대전환으로
농도 양양도 LPI



독특한 전력망으로
인공지능 에너지 수급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No.1 코리아 달성,
30년 미래먹거리 확보



바이오 혁신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K-팔저 융합으로
한국을 관광영국으로



전세계인을 사로잡는 K-콘텐츠



원팀 코리아를 통한
박람회 수출 확대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